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기관 한달 여 지자체 첫 공공수장고

# 단순 수장 넘어 보존·처리 공간으로 키워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등 사례 '제주 미술품 종합병원' 주문 제주미술협회는 도에 건의서 "도내 자체 보존처리 가능하게" 도 "방향 동의하나 검토 필요"

지난달 4일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문을 연 공공수장고. 전국 지자체 첫 문화예술 공공수장고로 이...

▶공립미술관 수장을 포화 대비 점검 맞춰 조성=제주현대미술관 입구 주차장 맞은편에 자리잡은 공공수장고는 사업비 82억8200만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졌...

다. 수장실 4실을 비롯 다목적실, 훈증실, 기계실 등을 구비했다.

제주도는 공공수장고를 건립하면서 도내 공립미술관을 중심으로 수장공간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홍보했다. 실제 개관식을 앞두고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문화진흥원이 소장한 미술 작품 120점이 공공수장고로 옮겨졌다.

공공수장고는 제주도의 당초 계획처럼 공립미술관의 수장고 포화에 대비할 수 있다. 제주지역 7개 공립미술관 수장률이 90%에 달하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탄생한 국립현대미술

관 청주관이 한 사례다. 국내 첫 '수장고형 미술관'인 청주관은 수장고를 전시관 형태로 바꿔 일반에 공개하는 곳이다. 개방수장고, 보이는 수장고, 보이는 보존과학실(유화, 유기분석, 무기분석) 등을 갖췄다.

▶"학에서 1명으론 안돼... 장기적인 플랜 짜야"-제주미술협회는 얼마 전 저지리 공공수장고를 보존·수복 기능도 수행하는 공간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주도에 보냈다.

그동안 도내 박물관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소장품이 훼손되면 학에사 등 직원이 직접 자료를 들고 관련

전문가를 찾았다. 심지어 일반 표구사를 이용하는 등 보존처리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다.

제주미술협회를 맡고 있는 강민석 제주대 교수는 "공공수장고는 보관 기준 마련,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 보존·수복 기능이 포함된 공간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학에서 1명 배치에 그칠 게 아니라 지류, 유화, 석 등 분야별 보존 처리 인력 등 장기적으로 플랜을 짤 수 있는 인력 확보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청주 등 다른 지역 사례 조사를 통해 보존처리실 운영 상황 등을 살펴봤다"면서도 "공공수장고에서 보존처리 기능은 선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실행 여부에 대해선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약국에서 펼쳐지는 군상들의 사연

극단 세이레 이달 20~21일 '무슨 약을 드릴까요' 공연

극단 세이레가 약국을 배경으로 새 작품을 빚어냈다. 이달 20~21일 오후 4시와 7시 세이레아트센터에서 공연되는 연극 '무슨 약을 드릴까요?' (김정훈 작)다.

그동안 연극 무대에서 꾸준히 연기

를 펼쳐온 설승해 배우가 첫 연출을 맡은 이 작품은 우리 시대 소통의 필요성을 말한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주부, 인생의 아픔을 폭식으로 해결하려는 여인과 그의 시어머니,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 능력이 있는 이성을 만나 삶을 바꾸려는 여자와 남자, 도박과 술에 빠져 사는 운전기사 등이 등장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알의 약이 아니라 사람의 따뜻한 목소

리라는 걸 일깨운다. 양현정 이영원 배우와 제주국제대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이 출연한다. 제주 토박이 연극인들의 노련함과 새로운 무대를 꿈꾸는 청년들의 풋풋함이 어우러진다. 극단 세이레는 "제주의 모든 공연예술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매년 연극 작품을 올리고 있는 제주 토박이 극단을 응원해달라"고 했다. 관람료는 성인 1만5000원, 청소년 1만원. 문의 010-7600-0828, 010-2691-5075. 전선희기자



지난해 세계청소년합창축제·경연대회.

## 아이들이 부르는 평화·화합의 노래

내일부터 4일간 서귀포서 세계청소년합창축제·경연 개막식 어린이 연합 합창

지구촌 아이들이 제주에 모여 평화와 화합의 노래를 부른다. 세계청소년합창축제·경연대회가 이달 17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 미국, 홍콩의 5개 합창단과 국내 어린이합창단 9팀이 참가한다. 제주지역 8개 어린이합창단과 2개의 청소년오케스트라도 특별 출연해 풍성한 화음을 빛낸다.

제주도 클래식 문화·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내건 이 행사에는 특히 캐나다 합창협회 합창 작곡상 수상자인 이만트 라민쉬(Mant Raminsh) 등 합창 전문가들이 초청됐다. 민속, 종교, 세속 분야 등으로 나누는 경연대회에서는 부문별 금, 은, 동을 가린 뒤 이중에서 최고의 합창단을 뽑을 예정이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7시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개막식에는 제주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 제주불교유담바라어린이합창단, 제주고은솔어린이합창단, 제주구좌어린이합창단, 제주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 서귀포소년소녀미션콰이어, 제주소년소녀합창단, 제주어로노래하는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 등 도내 8개 어린이합창단이 연합합창을 선사한다.

합창축제와 경연대회는 이달 20일까지 4일 동안 서귀포예술의전당과 서북전시관에서 펼쳐진다. 서북전시관 야외에서는 문화 교류 형식의 프리지콘서트도 예정되어 있다. 주최 측은 "아름다운 자연, 산과 바다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평화의 섬 제주에서 이 축제를 통해 세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같은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합창축제 공연은 무료 관람이 가능하지만 경연대회는 입장이 제한된다. 문의 010-7176-5033. 전선희기자

## 한림으로 찾아가는 여름 문학교실

제주문학의집 7월 25-27일 동화·그림·노래·이야기 놀이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문학에 빠져보는 시간이 있다. 제주 문학의 집(운영위원장 이종형)이 이달 25-27일 제주시 한림읍주민자치센터 다국어순번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문학교실 프로그램이다.

"꿈꾸는대로, 두근두근 얹!"이란 이름을 단 이번 행사에는 김윤화 아동문학가, 오경임 아동문학가, nal 일러스트레이터, 김진희 문학놀이 강사, 송임선 문학예술 강사, 정민자 세이레아트센터 상임연출 등 어린이 문학예술교육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이 초청됐다. 이들은 '남남 점점, 동화가 맛있다!',

'나도 작가가 될 거야!', '그림으로 그리는 알록달록 이야기', 이야기 놀이 '마법의 손에 맡겨라!', 노래 이야기 '자연을 노래하다', 연극놀이와 이야기 '그때 그때 다른 의자' 등을 주제로 동화 읽기와 쓰기, 그림, 노래, 이야기 놀이와 만들기, 연극 놀이 등 아이들과 상상하는 재미를 나눈다.

제주 문학의 집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우는 문학적 상상력, 표현력, 창의력을 체험하고 공동 수업으로 자연스런 일체감과 또래 이야기 공유, 문학예술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은 매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이어진다. 신청은 이달 20일까지 제주 문학의 집으로 하면 된다. 연락처 070-4115-1038. 전선희기자

## 문화가 쏘다

제주대 아라음악콩쿠르 제주대학교는 8월 16일(예선)과 17일(본선) 제18회 전국 학생대상 아라음악 콩쿠르를 개최한다. 참가 부문은 작곡, 성악, 플루트, 클라리넷, 그외 목관, 타악기,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금관, 비올라, 콘트라베이스다. 콩쿠르 참가 신청서는 제주대 홈페이지(www.jejunu.ac.kr)나 음악학부 홈페이지(http://music.jejunu.ac.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8월 6-9일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4)754-2790.

한라전시관 야생화 기획전 이번 전시에서는 제주 야생화를 배경으로 석부작 등으로 만들어 선보인다. 산이나 들에서 흔히 보는 비비추, 양하, 풍란 석부작을 하나의 작품으로 빚어낸 것들로 야생화의 소중함을 알릴 목적으로 기획됐다. 세계유산분부는 "제주 산과 들의 풀 한 포기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의 064)710-6657.

박물관 무료 닭죽 나눔 행사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중복(올해 양력 7월 22일)을 앞두고 이달 19일 닭죽 나눔 행사를 연다. 과거 제주에서는 조밭의 김매기가 끝날 무렵인 중복이 되면 닭을 먹는 것으로 여름을 시작했다고 한다. 쉽고 습한 여름 날씨에 쇠약해진 몸을 닭을 삶아 가족끼리 보양식으로 먹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재료 소진 시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문의 064)710-7693.

전문가 소프트웨어 교육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콘텐츠 제작 전문가 소프트웨어 교육과 포토샵 기초 교육 과정을 각각 운영한다. 콘텐츠 제작 전문가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은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4개 교육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첫 교육은 이달 22-26일 실시된다. 포토샵 기초교육은 이달 22일부터 서귀포시와 제주시로 나눠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ofjeju.kr) 참고. 문의 064)735-0614.

2억원 보증보험가입

올포함! NO팁+NO옵션

# 베트남전세기

다낭 / 호이안 / 후에

전세기특전 ① 5성호텔 ② 옵션(\$270)포함 ③ 특식6회

1,299,000원 → 1,199,000원

개천절 연휴 10/2(수) ~ 10/6(일)

3박5일 (제주출발22:00, 제주도착09:00)

니하오여행사 722-6638 JCA tour 조아투어 742-1980

포함사항 : 항공료, 호텔, 차량, 식사, 입장료, 가이드, 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매너팁, 개인비용, VAT

2020년

# 베트남전세기

도내여행사 좌석배분

다낭/나트랑/달랏 = 총5회

문의 : 010-2294-0592

니하오여행사